

아산 프론티어 유스 3기 수기집

유스타그램

#우리들의_이야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아산 프론티어 유스 3기 이야기



**ASAN
FRONTIER
YOUTH**



ASAN FRONTIER YOUTH 을 꿈꾼다!

ASAN
FRONTIER
YOUTH

김단식

2017. 07. 27 (목)





영양사 ①
영양사 ②

20171014

AFY, 춘천에서

영양사
영양사





CONTENTS



아산 프론티어 유스

프로그램 소개	10
PARTNERS	11

함께한 시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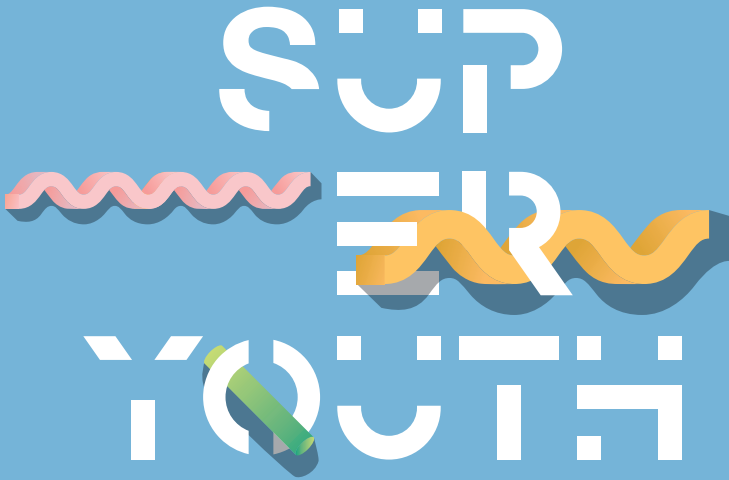
손잡기	14
들여다보기	16
도전하기	18

Be Yourself Be Youth

강대경·강우정·고성준·권병수·김민석	24
김소라·김예령·김지형·김하은·김현지	34
김효주·남은채·문기원·박범관·박아빈	44
석주희·안재선·안재승·양인희·오하림	54
원영덕·이상호·정지원·차인혜·홍지현	64

재단 소개	76
-------	----

“SUPER YOUTH는 SUPER DREAM을 꿈꾼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Asan Frontier Youth)는 기업이 정신을 갖춘 소셜 섹터 분야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NGO 인턴십, 임팩트 교육, 글로벌 스터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참가자들은 현장과 이론을 함께 학습하며 비영리 분야에 전반에 대한 관점을 확립해 나갑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탐구하며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합니다. 국내외 여러 소셜 섹터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소셜 섹터 교육 과정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NGO 인턴십

NGO Internship

임팩트 교육

Impact Education

글로벌 스터디

Global Study

PARTNERS

아산 프론티어 유스 3기는 복지, 국제구호, 인권 등 다양한 국내 비영리 기관 25곳과 5개월 동안 인턴십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소셜 섹터 전반의 이해를 두루 갖춘 알트랩, 공존플랜, 그리고 어썸스쿨의 김영광 삼촌과 함께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 3기 인턴십 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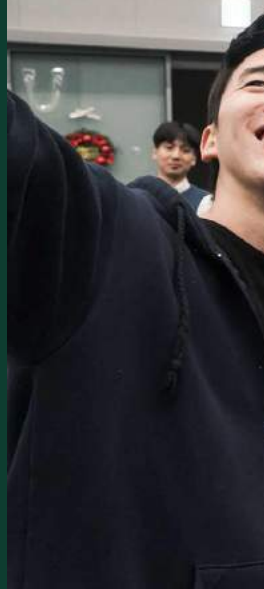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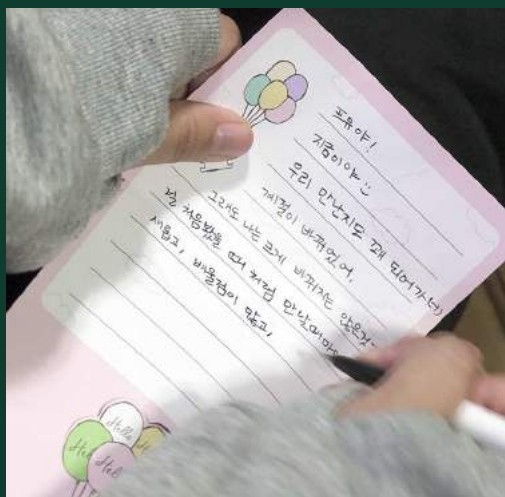


아산 프론티어 유스 3기 교육 파트너





Journey of Youth 함께한 시간들



손잡기

들여다보기

도전하기



ASAN
FRONTIER
YOUTH
THE ASAN NANUM FOUNDATION

손잡기

함께하는 시간들

사전교육+입단식+소모임+자치위원회+워크샵+송년회

함께하는 시간들은 유스 단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공감하며 나누는 시간입니다.

북촌 런닝맨으로 시작하여, 2분 안에 나를 소개하는 이그나이트, 어썸스쿨의 김영광 삼촌과 함께한 기업가정신 교육, 각자의 포부를 당차게 말하며 유스 과정의 포문을 열었던 입단식, 그리고 더욱 친해지는 시간이었던 2박 3일의 사전워크샵으로, 짧지만 정말 알찼던 사전교육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자치위원회와 소모임으로 3기만의 에너지로 유스를 채워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을 정취를 맘껏 느꼈던 10월의 중간워크샵, 아산 프론티어 유스 1~3기가 모두 모인 송년회까지! 유스라는 이름으로 만난 단원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행복한 웃음을 나눴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유스
#이멤버리멤버
#이때가좋았지
#또가고싶어요춘천

들어다보기

소셜섹터맵핑

팀 프로젝트의 서막

소셜섹터맵핑은 유스가 함께하는 첫 팀 프로젝트로, 소셜섹터의 프로젝트 사례들을 조사·분석하는 활동입니다.

각 팀에서 선정한 주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 인터뷰, 보고서 작성, 발표, 콘텐츠 제작 등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단원들의 자료 수집 및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문제의 혁신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스 단원 모두가 참여하는 회고 워크숍을 통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면서, 소셜섹터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첫 인터뷰

#첫 팀프로젝트

#3M 거대 포스트잇

#로직모델

#회고워크샵

#알트랩 감사합니다





소셜섹터 연사 특강

소셜섹터 기초 다지기

소셜섹터 연사 특강은 소셜섹터맵핑 과정 중 하나로, 비영리 기관(NGO/NPO), 사회적 경제(SE/SV), 기업의 사회적책임(CSR)분야의 실무자들에게 생생한 현장이야기를 들으며, 소셜섹터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비영리 부문의 선배들을 만나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들이 사회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해왔던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될 소셜섹터맵핑과 사회혁신프로젝트 과정에 필요한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비영리선배님

#소셜섹터와친해지기

#연사님의 명함을 받아라

#질문있으신분?

#저요!

도전하기

인턴십

현장과의 몸통 박치기

인턴십은 유스들이 5개월 동안 비영리 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과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25개 비영리 기관에서 근무하며 현장 경험을 쌓고, 담당 업무를 통해 실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턴십 기간 중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기관 내 비영리분야 종사자와의 1:1 멘토링을 통해, 진로와 인턴십 전반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5개월 간의 실무 경험과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3기 단원들은 꿈꾸는 비영리 인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슈퍼인턴
 #비영리새싹의_기관나들이
 #P;π
 #인턴-고통=0
 #인턴십과교육사이
 #거대한먼지가_되자



사회혁신 프로젝트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과정

유스 단원들이 해결해보고 싶은 사회문제를 선정하여,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서 직접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회혁신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것은 단원들이 서로 논의해나가는 과정(process)이며, 매 세션마다 회고(reflection)하면서 스스로의 리더십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피터 리플렉션

#엣지(edge)있게

#비영리창업 체험판

#팀워크의 중요성

#설득





글로벌 스터디



사회혁신 프로젝트_해외판

사회혁신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사회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결하는
해외 기관을 탐방하는 활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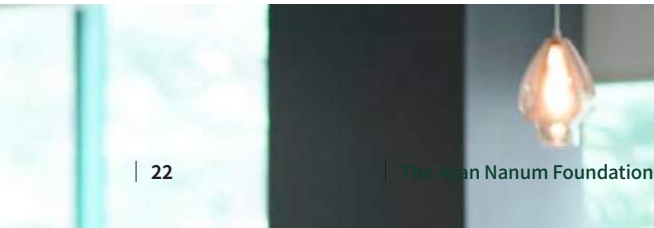
해외의 다양한 기관들을 방문하여 많은
인사이트(insight)를 얻고, 이를 파일럿
프로젝트에 반영하여, 유스만의
시각으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소셜섹터는어떨까?
#세상은넓고배울것은많다
#Hi_we_are..
#갈_수_있다고 생각하면
#출국할_수_있는_세상
#왔노라_보았노라_배웠노라



**Be Yourself
Be Youth**





#함께해서_좋았어

#25명의_시선들





운수 좋은 나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 지원했을 무렵은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가진 스펙으로 과연 대외활동이나 인턴에 지원했을 때 서류전형이라도 통과할 수 있을까 하고 기말고사 기간이었음에도 그저 제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서류전형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말 만족했습니다. 그때의 마음은 서류라도 통과했으니 욕심 내지 말자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면접 당일,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벌써 5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준비라고는 제 자기소개서만 달랑 한 번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면접 장소에서 일찍 와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장소의 분위기에 욕심이 났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가운데에서 왼쪽 맨 뒷자리에 앉아서 면접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니 그냥 욕심이 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후회했습니다. 준비라고는 자기소개서를 달랑 한 번 본 저를. 그렇게 후회하며 제 자기소개서를 다시 보고 면접을 봤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면접관들이 온통 ‘나’라는 사람에 대한 질문만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아무리 많이 봐어도 준비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손가락질하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말 후회했습니다. 욕심만 낸 것 같아서, 아쉬워서 후회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과거만을 돌아봐도 정말 무책임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후회만 했기 때문에 해냈다는 자부심은 없었고 그저 관심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목적없이 지낸 저의 부족함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산나눔재단에서 교육받는 동안, 인턴하는 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인턴 기간 동안 지치고 힘들어했던 것과는 달리, 돌아보니 슈퍼 유스로 지내는 동안에는 많이 밝기만 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저 비영리에 관한 관심 때문에 왔던 저와는 달리, 동기들은 저보다도 더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고민들이 모두 멋졌고 그래서 그만큼 동기들에게서 많이 배웠습니다.



#자칭피터의숙적

#메말라버린오이

#고민만많은허당

자신의 시간에 엄격하지만, 소녀 감성에 감동하게 하는 우정, 면접장에서 나의 욕심을 불러일으킨 성준, 제일 노는 것 같지만 제일 열심히 사는 병수,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운 것만 배우게 해준 민석, 내가 배워야 할 세심함을 알려준 소라, (생명은 적십자가 아닌 이 분 것) 진정한 숲녀 예령, 웃는 모습에 세상 행복함을 보여주는 지형, 환하다는 말이 잘 어울리는 하은, 진심 덕분에 정말 고마웠던 현지, 꼼꼼한 비서가 잘 어울릴 것 같은 효주, 발표할 때 반할 뻔한 은채, (강조가 필요한) 따뜻따뜻한 생각을 가진 기원, 뚜렷한 주관이 부러운 범관, 내가 생각하는 진짜 리더 아빈, 자체발광 주희, 정말 미래에 어떤 인물이 될지 궁금한 재선, (감사해요 햄)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하는 동안 나의 고민을 다 털어냈던 재승, (아무리 생각해도) 열일하는 인턴 인희, 알고 보면 웃긴 여자 하림, 내 고민 들어줘서 정말 고마운 영덕, 내가 산 전태일 평전의 주인공 상호, 데시벨이 낮은 사람인지 높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여자 지원, 진지하고 뚜렷한 주관이 뭔지 알려준 인혜, 제일 마음이 넓고 생각이 넓다고 생각하는 지현. 무턱대고 덤비기만 했지만 인생의 질문만을 남겨준 윤상석 소장님, 몇 번 못 뵈는 것 같지만 나의 고민의 답을 알려주신 박지훈 팀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멘탈 천성우 매니저님, (수고했다) 아직도 말을 못 놓은 동갑 왕코. 모두에게 짧게 표현했지만 저에게는 전혀 짧지 않은 배움을 주었습니다.

I'm not a man I was. 문 앞에 써놓고 날마다 되뇌는 저의 좌우명입니다. 저는 가만히 있는데 주위가 바뀐다고 그것을 변화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변해야 그것을 변화라 합니다. 배우고 느낀 만큼 하루하루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배움에 감사할 것입니다.

비영리를 꿈꿀 수 있다는 것

아산 프론티어 유스가 제게 준 가장 큰 의미는 비영리를 '알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꿈만 꾸던 비영리가 무엇이고, 어떤 일들이 있으며, 어떤 사람들이 일하는지 듣고 보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곳에서 알게 된 비영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무척 힘들지만 아주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아주 어릴 적부터 나는 한결같이 비영리를 꿈꾸어 왔지만, 이 곳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내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꼭 NGO가 아니라도 충분히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세상을 바꾸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곳에 와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하고 싶다' 말할 수 없던 것을 아산 프론티어 유스가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가장 희망하던 기관에서 인턴 업무를 맡게 되어 더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섯 달 동안 함께했던 기관은 '한국 중앙자원봉사센터'입니다. 조금은 딱딱해 보이는 이름에 편견을 가지기에 십상이지만, 이곳은 전국의 245개 자원봉사센터를 잇는 중앙 단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매우 새롭고 규모 있는 일들을 경험해볼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모든 업무가 전국의 센터들과 연결되어 있어 늘 매우 다양한 사람들과 상시 소통해야 했고 스텝으로 참여했던 행사들은 대통령/총리 등이 참석하는 국가 단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일은 그중 작은 일이었을지라도 직원 분들이 이 행사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해내고 당일 현장을 관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일이든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여 준비하고 업무 진행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법을 배운 것 이외에도 직원분들 개개인이 비영리



#꿈을키우는중
#두근두근비영리
#더나은세상으로



실무자로서 보여주시는 모습들에 종종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하시면서도 활동가로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한 활동가 모임에 참석하고, 주말에도 사회적 가치와 함께하는 취미 활동을 즐기시고, 장난스러운 대화 속에서도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언어는 정확히 정정하고.... ‘아, 나는 꼭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다섯 달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기관 내에서뿐 아니라 아산 프론티어 유스 동기들과 함께할 때 더욱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같은 온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가슴 뛰는 일이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시작하기 전 속해있던 집단들에서는 쉽사리 꺼내기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이곳에서는 쉽게 꺼내어 함께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가치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함께 절망하지만, 또다시 함께 꿈꾸면서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하게 나만의 사회적 가치를 품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다시 학교라는 집단 속의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가겠지만, 학교에서도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게, 나의 꿈으로의 발걸음을 떼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마무리하며.



나에게로 돌아오는 여행

2017년, 휴학을 하면서 학과 생활에만 머물러있던 저는 대학생들만 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루했던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들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비영리 분야에 대한 교육과 인턴십, 사회 혁신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글로벌 스터디까지 아산 프론티어 유스가 내가 찾던 그 활동임을 확신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일일신 우일신 [日日新又日新], 날이 갈수록 새롭다.
사회복지학부생으로서 이전까지 경험했던 비영리 활동은 일부분이라고 하기에도 부족할 만큼 작은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알고 있던 작은 세상이 비영리의 전부라고 믿고 있던 여항 속에 작은 물고기는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통해 거대한 바다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사회혁신을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들과 NGO기관들, 기업 CSR의 교육을 들었고, 나 자신은 사회혁신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나 고민하고 실천했습니다. 무엇을 해야할지도 모를 정도로 새롭고 하루 지나면 그 전날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매일이 달랐습니다. 정신 없이 지나갔던 7개월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실천하고자 했던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직원으로서 기관에 소속되어 인턴십을 진행했던 하트하트재단에서의 5개월도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여정에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돕고 싶었던 나의 지향점과 가장 맞닿아 있던 재단에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을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이전까지 제가 경험했던 발달장애인들과는 다른 발달장애인들,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에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 자신의 인식도 많이 변화하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정말 만들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감성적귀차니스트
#돌고돌아바다로
#슈퍼아웃사이더



장애인식개선사업,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제, 장애인식개선강사 육성사업을 진행하면서 매일 매일이 새로웠고 즐거웠습니다. 부족한 인턴이었던 저를 끝까지 격려해주시고 함께해주셨던 하트-하트 재단의 식구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5개의 신체에 깃들었던 하나의 영혼, 아산 프론티어 유스

다르게 살아온 인생만큼 다른 25명의 사람들이 비영리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서로를 이해하고 고민을 함께 했습니다.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나누면서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함께 했던 유스 친구들이 없었다면 누구라도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7개월을 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각자가 다른 곳에서 다른 길을 가겠지만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공통된 추억, 함께 겪은 괴로운 시간, 수 많은 어긋남, 고민, 마음의 격동...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이나 친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여정을 이어나갈 유스 친구들 모두를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더불어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주신 아산나눔재단과 항상 뒤에서 유스를 지켜주신 박지훈 팀장님과 천성우 매니저님, 윤상석 소장님과 이준규 인턴님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2017년은 아마도 제 인생에서 꽤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 고민했고, 도전했고, 실천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상에 가려졌던 비영리의 현실을 마주하고 원 없이 경험하고 아파했습니다. 타인을 돕고자 했던 예비 비영리 활동가의 소중한 '자신'을 찾을 수 있었고 그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찬란했던 나의 26, 나의 2017

치열했던 2017년이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나를 되돌아볼 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이 사치스럽게만 느껴졌고, 그런 시간이 남에게 피해를 줄 것만 같았습니다.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24명 친구와 함께 하는 일이기에 나만 힘들다고 셀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이 활동이 너무나 소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주중에는 제가 속해있는 기관에 충실하며 퇴근 후에는 수많은 과제와 정답과 끝을 알 수 없는 논의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힘들 법도 한데, 아무도 힘들다고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기 싫다고 하지도 않았고, 못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제 동기들이 너무 멋있었고 부러웠습니다.

내가 앞으로 바라는 사회?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사실 제 머릿속에는 그런 거대 담론은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냥 친구들과 함께하던 봉사 활동이 재미있었고, 사회를 걱정하고 사회에 관해서 얘기하는 친구들이 멋있었고, 제가 받은 것만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동기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함께 생각했고, 주변 사람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라봤 습니다. 그

사이에서 앞길만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저를 돌아보며 자책 하고 반성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분야에 열심인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극(?)을 받고 싶어서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 3기에 지원할 때 무엇이 기대되고 무엇을 얻고 싶냐는 자소서 질문 항목에 저는 이렇게 답했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일원이 된다면 저와 비슷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24명의 사람과 함께 7개월을 꾸려나갈 수 있고 그들과 이야기 나누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대됩니다.”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저의 바람대로 정말 그럴 수 있었고, 그랬던 것에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자극을 받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곳은 아산 프론티어 유스 3기 동기뿐만 아니라 인턴십 기관 ‘(사)한국자원봉사문화’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한자문은 부족한 에너지와 열정을 채워주는 주유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비전이 무엇인지, 미션이 무엇인지, 조직의 비전과 미션이 왜 중요한지. 경영학과 출신인 저는 수십번은 더 들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단순히 경영학 교재에 나오는 비전과 미션이 아닌, 어느 한 조직이 하나의 가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조직의 가치관 아래 항상 자기 일에 자부심이 넘치고 모든 일에 파이팅 넘치는 14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경외의 대상이면서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호흡한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기쁨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보고서, 기획서, 회의록 작성 같은 실무적인 부분을 배울 줄 알았던 인턴십 기간에 참된 조직이란 무엇인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연사의 강연, 소셜섹터맵핑, 사회혁신 프로젝트, 비영리 기관에서의 실무경험까지...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 시간은 저 스스로에 대해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해준 시간이었었고, 제 주변의 사람들, 더 나아가 사회에 조금이나마 눈을 뜰 수 있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이 7개월이라는 기나긴 장정이 훗날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놓고 제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예상할 수 없지만, 이 시간이 있었기에 앞으로 남은 나의 학교생활, 앞으로 저의 삶이 더욱더 알차질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26, 다시 오지 않을 2017이기에 새삼 슬프기도 하지만, 이 기간에 함께 즐겁고 함께 고생한 동기들이 앞으로 바뀌 갈 사회가 너무 궁금하고, 앞으로 그들과 함께할 시간이 너무 기대됩니다.

#프로고민러

#따뜻한사람

#멋진아빠되고싶



나의 절실함이 가져온 7개월의 덤

목표가 없어 더 절실했던 시작

노란 머리를 하고 아산 프론티어 유스 사전 설명회에 갔던 5월의 여름이 떠오릅니다. 저는 그 날 처음 만난 유스 2기 선배를 붙잡고 꽤 오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 간절하게 목표를 찾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목표 없이 표류한 지난 시간에서 겪은 공허를 무엇가로 가득 채우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절실했습니다. 붙어도 그만, 떨어져도 그만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사실 아산 프론티어 유스 7개월의 시간은 저에게 너무나 절실한 동아줄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시작한 과정 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처럼 에너지를 쏟아내며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활보했습니다. 제 모든 에너지의 원천은 삶의 목표를 찾고 싶다는 절실함에 있었습니다.

끝없는 논의와 회고의 시간

그러한 절실함으로 시작된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도 충분할 만큼 꽉 짜여 있었습니다. 7월과 8월 소셜섹터매퍼링을 통해 만난 ‘착한언니들’ 팀에서 이견을 조율하고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배웠고 알트랩에서 알려주신 소셜섹터 전반과 회고하는 법은 이후 유스 과정의 탄탄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9월부터 수료식까지 쪽 이어진 사회혁신 프로젝트에서 ‘아유’ 팀원들과 끝없는 논의와 회고의 시간을 가지며 팀워크를 쌓는 법, 내 의견을 더 명확히 표현하는 법,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법 등 그 어디서도 배울 수 없었던 소중한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조율하고 이끌어주신 윤상석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EverNoter
#슈퍼인턴
#빅게임개발자

따뜻함과 자기 주도성의 아름다운가게

5개월간 ‘교육문화팀 인턴 사과’로 생활한 아름다운 가게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자기 주도성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였습니다.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통해 아름다운가게의 가치와 철학을 알리는 교육문화팀에서의 인턴십은 실무 능력, 재미, 보람 모두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었 습니다. 특히 ‘빅게임’이라고 불리는 게임형 환경 교육의 개발 단계부터 참여하여 교육 참여자 및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진행, 마지막 매뉴얼 단행본 작업까지 사업의 전 단계를 수행한 경험은 사회 생활에 첫 발을 떼는 저에게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매달 진행된 나눔문화국 전상준 국장님과의 일대일 멘토링 시간은 저의 진로와 비영리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칭찬과 믿음 속에서 자라난 성장의 씨앗

아산 프론티어 유스 에서 보인 저의 과도한 노력이 때론 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답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하루 하루가 오늘이 마지막인양 에너지를 쏟아내는 저에게 잘하고 있다고 멋지다고 칭찬해주고 보듬어준 유스 단원들과 아름다운가게 교육문화팀 팀원분들 덕에 소진되지 않고 조금씩 나아가며 성장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목표를 세우고 미래를 향해 또박 또박 걸어가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이 글을 함께 읽을 여러분 덕에 제가 무너지지 않고 똑바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칭찬과 믿음 속에서 자라난 성장의 씨앗을 제 안에 잘 품고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나의 YOUTH

김소라는 자란다

17년은 성장의 한 해였습니다. 2월에 다녀온 해외 봉사의 추억들에 힘입어 4월, 아산 프론티어 유스 모집 안내문을 보자마자 ‘이건 꼭 해야 한다’라며 지원했습니다. 설명회, 서류 심사, 면접 심사를 거쳐 7월, 아산 프론티어 유스 3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일을 해보았고, 그 과정에서 많이 울고 웃었습니다. 사전 교육을 받으며 쏟아지는 새로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 며칠을 끙끙 앓았고, 소셜섹터마핑을 하면서 비영리 분야를 어렵פות이 알게 되었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제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고,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 멀리 있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제게 있어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그야말로 성장이었습니 다. 성장에는 으레 성장통이 따르듯,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도 많았지만, 결국엔 그 성장통마저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사랑, 사랑, 사랑

돌이켜보면 아산 프론티어 유스 동기들에게도, 푸른나무 청예단 사람들에게도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며 가며 건네주었던 말 한마디 속에 걱정, 칭찬, 관심, 사랑이 담겨있었다는 것을 끝나갈 무렵에야 깨닫습니다. 일도, 표현도 서투른 인턴에게 해주신 따뜻한 말들은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착각하게 하곤 했습니다. 표현할 기회가 적었지만, 7개월 동안 같은 꿈을 꾸며 울고 웃었던 아산 프론티어 유스 동기들에게도 많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푸른나무 청예단에서 일하면서 만났던 청소년들에게 참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선생님, 선생님 하며 다가와 주고, 자신들의 이야기 보따리를 선뜻 풀어주던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사랑이었고, 소중한 순간들이었 습니다. 청소년들을 만나는 것의 묘미를 온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제게 여러 형태의 사랑을 주었던 모든 분들 덕분에 저 또한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



지금, 나의 속도로

인턴십 첫날,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첫날이라 모든 게 다 낯설다. 여기서 적응이 될 때쯤이면 인턴십도 끝나있겠지. 겨우 2주였던 봉사 활동이 내 삶에 이렇게나 영향을 미쳤는데, 5개월은 과연 얼마나 궁금하다. 그런데 뭐 꼭 변화가 없어도 괜찮다. 그냥 스스로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그저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만 했던 많은 문제에 대해 아주 작더라도 나의 소신이 생겼으면 좋겠다.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도 생길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교육받을 때처럼 몸살도 나고 그럴 것이다. 하지만 역시 나는 또! 잘 해낼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이제, 길었던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지금의 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첫날의 다짐만큼은 이룬 듯합니다. 문득, 이번 여성인권영화제의 슬로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당신의 속도로.’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하면서, 제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속도를 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지금, 그 누구의 속도도 아닌 김소라의 속도로 또다시 가보려 합니다. 지난날들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온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김소라

#나는 소소

#나는 나



삶의 다양성에 대한 작은 용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 지원하던 순간을 다시 떠올려 보면, 7개월 전의 저는 더 크고 넓은 세계로의 분갈이를 갈망하던 어린 나무였습니다. 오랜 시간 단단하게 나의 뿌리가 된 가치들을 어떻게 세상에 펼칠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세상은 비단 선의만으로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감하여 스스로의 역량부터 길러야겠다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만난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저를 더욱 성장하게 해줄 수 있는 새로운 화분이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단원으로서 보냈던 나날들은 매일이 새로운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지금껏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깊이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셜섹터맵핑’, ‘사회혁신 프로젝트’ 등의 교육 과정은 소시민적 태도로 삶을 일관해왔던 제가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사회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높여주었습니다. ‘소셜섹터맵핑’ 교육 과정에서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섹터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앞선 이들의 발자국을 보며 복잡한 사회 문제만큼이나 이를 해결하는 방법 역시 정해진 답이 아니라 유연한 사고가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혁신 프로젝트’ 교육 과정을 통해 한 가지 사회 문제를 주제로 정해 팀원들과 치열하게 고민하며 우리의 시각에서 답을 찾아나가고, 이를 직접 실행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턴십 기관인 ‘생명의숲’에서는 숲을 통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다양한 사업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갓 걸음마를 떼는 아이처럼 처음 겪어 보는 것 투성이었지만, 서툴렀던 순간들을 밑거름 삼아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낯선 산림 용어들에 익숙해지기 위해 틈틈이 기록했던 메모장과 술한 시나리오 회의만큼이나 바쁘게 진행되었던 여러 행사들.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 이상의 의미를 찾아 활동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며 애쓰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생명의숲에 정말 감사했던 부분은 ‘안아주는 환경’이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힘을 주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존중 받을 수 있는 열린 환경 덕분에 더욱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관계 속에서 웅크리지 않고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 단원으로서 교육 과정과 인턴십 과정을 병행하며 정신없이 바빴던 하루들 속에서 저를 지탱해주었던 원동력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 단원들, 생명의숲 활동가들과 대안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며 삶의 다양성에 대한 작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결코 ‘틀린’ 삶이 아니라 저마다의 ‘다른’ 삶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나만의 길을 걷는 것을 조금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단언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를 뛰어넘어 활동가의 DNA를 지닌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전히 주변에 설명하기 어렵고 때로는 이 길을 계속 가는 게 맞을지 불안하고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아산 프론티어 유스 안에서 배웠던 것들을 잊지 않고 조금씩 균형을 맞추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디지털노마드

#취계라이프

#프로혼행러

방황의 끝에서, 다시 시작

‘그런 일을 하면서 밥벌이가 될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고, 정말 뭔가 바뀌기는 할까?’.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지원한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서 저는 명확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과정이 끝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확실히 알게 되어서, 방황하는 시간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끝나가는 지금 정답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얻어가지만 편안한 마음입니다. 막연했던 고민이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면서 구체적으로 바뀌고, 스스로에 대해 믿음과 이해가 깊어져 앞으로의 제가 더 기대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더 방황해도 괜찮다’고 저를 응원해주고 믿어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과정이 끝나가는 지금의 나는 이전의 ‘나’와 다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고, 저도 그 과정에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인턴기관에서 만난 직원들, 북한이탈주민 정착 분야의 다양한 종사자분들, 복에서 온 친구들, 아산 프론티어 유스 단원들!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모두 나열할 수 없지만, 그들과 만남은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 인턴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같은 ‘통일’을 이야기하더라도 언어와 욕망이 모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제 생각도 정리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사회 생활이어서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직원들의 배려 덕분에 5개월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인턴으로 일하면서 직업에 대한 생각도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직업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지금은 어떤 일을 하든지 좋은 사람으로 정성껏 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 막내로 귀여움과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이렇게 어리고 성실한데 원들 못할까!’ 하는 무모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져서 즐겁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알게 된 소중한 인연들과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자신만을 돌보기도 너무 벅찬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보자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으니 이제 시작입니다. 기존의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방향하려고 합니다. 훗날 최선을 다해 방황했노라고 청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방향중

#프로블펀러

#소진되지말자





아프유, 다사다난했던 시간들

‘웃고 울었던 지난 6개월을 종이 한 장에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키보드 위에 손가락이 쉽사리 움직여지지 않아, 한참을 고민하다가 지난 시간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긴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사전교육 동안 만났던 여러 비영리 연사분들, 뿌듯함도 아쉬움도 많이 남았던 소셜섹터맵핑, 처음으로 비영리에 발을 담그고 첫 사회생활을 경험했던 인턴십, 치열했고 애증의 사회혁신 프로젝트까지. 매 순간 느꼈던 저의 감정, 생각, 고민이 뽁뽁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지원하게 된 계기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속한 사회에서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러한 순진무구한 꿈과 비영리에 대한 환상은 생각했던 것만큼 쉽거나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비영리 조직이라고 해서 선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만 모인 곳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밥벌이 수단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최선이 아닌 차선인 일이었습니다. 뜨거웠던 지난 여름날,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비영리가 차선이 아닌 최선이 되어야 합니다.” 대표님의 말씀은 제가 왜 비영리를 택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고, 내가 내린 이 선택이 최선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5개월간의 인턴십이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무실 내에 냉랭함과 무관심, 생각해왔던 일들과는 전혀 다른 수백 장의 회계서류 복사는 회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견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움직임을 시도해보았습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직원분들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작은 일들을 도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캔을 하고 영수증을 복사하는 등의 사소한 일들도 완벽하게 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책꽂이에 놓인 국제개발 협력 교육자료와 필리핀 사업 사업계획서를 꼼꼼하게 읽으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인터넷을 검색하고 메모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필리핀 출장을 가게 되었고, 현지에서 아이들의 사랑스럽고 순수한 미소를 보며 내가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작은 업무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교육과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코피노 아동 은주의 모금 기획을 맡아 스토리를 기획하고 해피빈 모금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사업 홍보 자료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능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업무를 진행하며 조금 조금씩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 대해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무실의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께서는 “선생님 덕분에 사무실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어요.”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한마디는 업무와 관계에 지친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니 선생님들의 따뜻한 한마디, 출장 중에 만났던 필리핀 아이들의 사랑스럽고 환한 미소들이 모여 나를 지탱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삶의 비루함이, 아니 인간의 비루함이 일상을 덮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것들 사이로 숨어 들어갔으면 좋겠다. 작은 호의들과 흥내 낼 수 없는 온기들을 떠올리자. 누군가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가까운 사람의 찌푸린 표정을 읽어내고 등을 두드려 줄 수 있기를.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길.” 삶의 비루함이 내 일상을 덮쳐 올 때, 필리핀 바기오에서 만난 수줍게 꽃을 내밀던 아이들의 수줍고 사랑스러운 웃음을 떠올리며 그때의 행복함에 잠시 숨어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지난 시간을 회고하는 지금, 그동안 저의 작은 움직임과 노력이 분명 누군가에게 따뜻한 온기로 전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슈퍼 유스로서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통해 저는 성장했고,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작은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소함이 모인다면 세상은 작지만 조금씩 더 행복한 곳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긍정에너지뽀뽀

#실력보단노력파

#경청공감보





나를 알게 된 시간들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 지원할 때부터 다른 봉사 활동이나 자기소개서보다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합격 후 사전교육이 시작되고 섹터별 연사 특강을 통해 여러 활동가의 강의를 듣고, 소셜섹터맵핑을 통해 활동가들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끝에는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나의 사회적 가치를 찾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사회적 가치를 찾기 앞서 해야 할 일들이 쏟아지고, 쏟아지는 일들을 하루하루 처리해 나가기 바빠서 나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전부 다 팀 프로젝트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일 속 여러 관계가 존재하고, 그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알아가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8월부터는 서울YWCA에서 인턴십과정을 거쳤습니다. 서울YWCA는 52개 지역Y 중 하나로써 1922년 창립하여 애국계몽, 여성 인권, 사회복지, 청소년, 소비자 및 환경, 평화통일 등 다양한 운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는 모금개발부의 위기 청소년 후원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관악사회복지 청소년단체 햇살에서 활동하고, 그 이후에 햇살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청년단체 오존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청소년 인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이 단체 안에 있는 청소년만 생각했던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위기 청소년의 문제는 내 관심 밖의 일이었고,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굳어진 인식은 바뀌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며 위기 청소년과 소통하면서 그들 또한 내가 그동안 만났던 청소년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최근 크고 작은 청소년 범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잔인하고 자극적인 내용만 미디어에 노출하면서 소년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며 적어도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하고 있을 때 위기 청소년에 대한 기존 나쁜 인식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게끔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전과 현재의 달라진 점입니다.

인턴십의 시작단계인 8월에는 소셜섹터맵핑을 마무리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사회혁신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더 바쁜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회혁신 프로젝트는 팀이 한 가지 사회문제를 뽑아내고, 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소셜섹터맵핑에 비해 주어진 과제가 없고, 팀별로 자유롭게 진행해야 하기에 주어진 자유에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이를 겪으며 '나는 내 앞에 해야 할 것들이 늘어지지 않으면 초조해하는, 또 이 무게혁성을 견뎌낼 인내심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체적으로 길게 팀의 논의를 거치고, 팀 내에서 저의 역할을 고민하는 과정이 처음이었습니다. 확실히 '다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뿌듯하기만 한 경험은 아닙니다. 평일에는 인턴십 기관에서 일하고 또 저녁에 집에 와서 팀 논의를 위한 회의 준비와 자료조사를 하고 주말에는 늦잠 자고 싶지만, 팀 회의를 하러 카페나 빈 회의실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모두 힘들었겠지만, 우리 팀원들은 다들 한 번도 회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4개월 동안 이렇게 지낸 것은 특별한 경험임은 확실합니다. '어느 집단에서 이런 경험을 하겠나'라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 혼자가 편하고 혼자 하는 모든 것을 즐긴다고 생각한 제가 저를 안아주는 조직에서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기꺼이 하는구나! 라는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안아주는 조직은 운이 좋아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페미니스트

#정리왕

#인내심부족



인턴십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전반적으로 배운 것은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총망쳐야만 관계를 맺고, 조직에서 일할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나는 24년을 살면서 나에게 집중하고 남의 생각을 빌려 생각하는 것이 아닌 온전한 내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자기소개서를 쓸 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았고, 왜 이 경험이 하고 싶은지 언어와 글로써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를 설명하고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도 내가 이 사회문제를 왜 해결하려는지 내외부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나의 의견과 생각'에 집중하고 나 자신도 설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앞으로 비영리 활동가로서 지내면서 계속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실제로 연습해 본 경험이 이 프로그램에서 얻은 나의 큰 자산입니다.



막연한 관심을 확신으로 바꿔준 아산 프론티어 유스

2017년 상반기, 저는 마지막 학기를 보내며 여러 기업의 취업 설명회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취업설명회에서 인사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취업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봤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간절하게 일하고 싶은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저는 수익보다는 가치를 창출하는 곳,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아주 막연한 목표만 갖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취업공고가 올라오고 지원기간이 지나 동안 저는 지원하고 싶은 곳을 찾지 못해 단 한 곳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지막 학기인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철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죄책감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몇 달을 안개 속에서 헤매는 기분으로 지내다가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모집공고를 발견했고, 카우앤독에서 열린 설명회에 찾아갔습니다.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천성우 매니저님의 설명과 2기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진로와 관련해서 그토록 설레었던 것은 너무나 오랜만의 일이었고, 저에게는 아산 프론티어 유스라는 기회가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 간의 인턴십과 교육과정이 마무리된 지금, 저는 더 이상 막연한 관심이 아닌 확신으로 앞으로의 제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팀에서 일했던 시간은 제 인생에 커다란 한 획을 그어준 경험이었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쪽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가뜰이나 티오가 없는 분야이고, 예술 전공이 아닌 제가 문화예술 쪽에서 일하고 싶다면 주변에 이야기하는 것이 스스로도 자신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목말라 했던 기회여서 그런지 인천문화재단에서 하게 된 모든 일들에 저는 즐겁고 감사한 순간이 무척 많았습니다. 특히 19곳의 문화공간으로 취재를 나가 그곳의 대표님들과 1:1 인터뷰를 진행하고, 문화공간을 소개하는 단행본으로 제작한 것은 절대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갤러리, 재즈클럽, 목공소, 도서관 등 인천 곳곳에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단독으로 듣는 것은 문화예술에 대해, 그리고 사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인천문화재단에서 워낙 재미있고 뿌듯하게 일을 한 덕분에 저는 앞으로도 문화예술 비영리 기관에서 일하고 싶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예술경영 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도 고민하는 중인데, 바로 현장에서 일하는 것과 좀 더 공부하는 길 중에 어떤 쪽을 선택하든 마지막에는 제가 서있는 곳이 문화예술과 비영리가 함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서 만난 24명의 단원들은 다들 배울 점이 많고 빛이 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의 다양한 관심사와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더 행복한 사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모두 한결 같았습니다. 사회문제를 함께 토론하며 공동의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은 명확한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기관 인턴십과 병행해야 하는 만큼 막막하거나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정과 책임감으로 묵묵히 최선을 다 하는 단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자극을 얻기도 하고, 팀 내에서의 제 모습과 역할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통해 성장한다는 말의 의미를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친구들을 보면서 느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단원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했던 과정은 제가 이전에 해왔던 어떤 활동과 프로젝트보다도 큰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진로에 대해, 사람에 대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많은 고민을 안고 있던 24살의 절반을 아산 프론티어 유스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글쟁이

#문화예술활동가

#가치지향콘텐츠





우물 안 개구리, 슈퍼 유스가 되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와 함께한 7개월은 제게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의 모습이 상상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성장했고 치열하게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하나의 ‘대외 활동’으로 시작했던 첫 마음과 달리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인생활동’이 되었습니다.

내가 슈퍼유스일까?

학점 관리하고 차근차근 스펙을 쌓아가는 평범한 모범생이었던 제게 비영리는 마음에 품은 어릴 적 ‘꿈’이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었지만 부모님의 기대, 금전적 문제 등 현실을 마주하며 공무원/공기업 등 소위 말하는 안정적인 직장을 추구했고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 스스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지 않고 이게 현실이라며 마음을 닫고 준비한 그 길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슈퍼 유스는 슈퍼 드림을 꿈꾼다.’ 이 한마디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인생에 한 번쯤은 열정만으로 앞만 보고 달려보고자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무역회사, 금융권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곳의 인턴이 된 친구들과는 달리 전공과 전혀 상관없고, 미래도 불확실한 비영리를 선택한 것은 제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각자의 빛이 어우러진 슈퍼 유스가 되다

둥글둥글하게만 세상을 보던 제게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매순간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을 향한 노력이 그저 발버둥이 아닌 진심으로 고민하는 24명의 친구들과 만난 시간은 깨달음의 연속이었습니다. 내 꿈이 허황된 것이 아닌 당연한 고민이었다는 것을 각자의 삶으로 알려준 유스를 만나 행복했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합의 과정부터 소셜섹터맵핑,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나와 다른 생각에 때론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기도, 때론 조용히 귀 기울이기도 하며 치열하게 나눈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각자가 지닌 색이 어우러지며 어느 순간 아산 프론티어 유스 3기 모두가 슈퍼 유스로 보였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하다

유스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꿈을 나누고 고민했다면, 진저티프로젝트에서의 5개월은 이를 실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느끼고 세상을 향한 새로운 무브먼트를 제시하는 진저티프로젝트에서 <밀레니얼 초등교사연구> 프로젝트, <고등학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함께 한 매 순간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진저티프로젝트라는 안전한 실험실과 안아주는 환경 속에서 좀 더 용기내어 말해보고, 주도적인 역할을 찾아간 시간들은 때론 아프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 성장한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연구의 대상을 변화의 힘을 가진 주체로 바라보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깨달음과 힘을 길러주는 연구를 함께 하며 세상을 보는 시야가 확장되었고 앞으로 가야할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영리와 영리를 합쳐질 수 없는 두 갈래 길로만 보았지만 5개월 간의 여정을 통해 일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턴십을 하며 소셜섹터맵핑, 사회혁신 프로젝트, 자치활동을 동시에 진행하는 5개월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부족한 나를 마주하며 울기도 하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내면의 힘을 깨닫게 해준 진저티프로젝트와 퇴근하고 맥주 한 잔하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스 친구들이 있었기에 달려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마치며 저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할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7개월 전의 저는 ‘이 길이 맞을까?’라는 불안이 가득했지만 지금의 저는 두려움보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지더라도 그 안에서 성장할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불안이 기대로 바뀌게 해준 아산 프론티어 유스, 감사합니다!



#불안가득시작

#지금은기대가득

#슈퍼드림컴트루



뭉, and

지난 여름, 아산 프론티어 유스로서의 7개월을 시작 하던 때의 제 바람은, ‘함께 빛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고리울 청소년 문화의집 꾸마와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서 만난 사람들 덕분에 제 바람은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면 제가 꿈꾼 것보다 훨씬 더, 이들과 함께한 매 순간이 빛났습니다.

그저 왠지 마음이 가서, ‘비영리’를 더 알고 싶었던 제게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가슴 뛰는 설렘인 동시에 막막함이었습니다. 비영리 분야에 가까이 다가설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감사하면서도, 그 안에서 제가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내딛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꾸마의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바라봐주었습니다. 항상 저의 생각을 물어보고 존중하며, 더욱 자유롭게 배우고 꿈꿀 수 있게 배려하던 그들은 제게 큰 힘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을 만나며, 지역을 고민하며, 서로의 삶의 태도를 나누며 제게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고 저 역시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 단원들과 공정여행을 주제로 <종로02>팀, 비영리 조직 내의 소통 문화를 주제로 <SIP덕>팀, 그 외 여러 세션을 통해 만나던 시간 역시 소중했습니다. 다양한 문제의식을 나누고 끊임없이 서로에게 질문하고 이해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갔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 3기 한 명 한 명은 든든한 친구이자 존경스러운 동료였습니다.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꾸마와 아산 프론티어 유스 안에서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고 싶은 사람인지 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그래도 된다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받은 응원과 지지를 잘 나누며, 내게 오는 마음을 잘 받고 잘 돌려주며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럴수있지

#그래도괜찮아



7개월 전, 막연하게 바랐던 ‘함께 빛나는 모습’은, 이제야 조금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ناد운 진실한 모습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잘 녹아드는 것, 그런 서로를 바라봐주고 응원해주는 것, 그렇게 모두가 각자의 모습으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것. 그럴 수 있었기에 제 가슴 깊이 남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는 7개월의 시간과 사람들을, 함께 빛나던 순간들을 잘 담아두고 오래 기억하고 싶습니다.

제가 7개월간 불리던 애칭 ‘뭉기’의 첫 글자 ‘뭉’은, 소리 내 읽어보면 작고 둥근 울림이 남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기를, 앞으로도 그렇게 작고 둥근 울림을 남기며 살아가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게, 제 옆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함께 빛날 자리를 비워두고 싶습니다. 뭉, and

휘슬

아산 프론티어 유스 3기는 저에게 있어서는 초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이 제출하라고 하셨던, 장래희망 같은 존재였습니다. 2기 선배 단원에게 소개를 받았고, 약 1년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처음 지원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일단 고생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쉽게 해 볼 수 없는 경험 앞에서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욕하는 모습이 악의가 담긴 모습이 아니라, 성장하는 모습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변한 모습을 찾아보았더니,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의미 있게 듣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좋아해요.”라고 이야기 하고 다녔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제 생각을 말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딱 듣는 것에서 끝났습니다. 내가 잘못된 말을 하면 어찌지, 도움이 안될까봐 해서 이야기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의견을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은 논리 있게 사람들 설득 시킬 정도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게 첫 직장인 아산다운커피는 저에겐 ‘덕업일치’ (좋아하는 것과 일을 동시에 하는 것)를 완성시켜준 곳입니다. 무역과 마케팅을 공부한 저에게 제 지식을 좋은 곳에 활용하고 싶은 바람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기관과 제가 같은 가치를 통해 비전과 임팩트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적은 있지만, 출근해서 일하기 싫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웠고,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지원하기 1년 전에도, 지원 공고가 나왔을 때도, 지원 직전에도, 면접 직전 만해도, 활동 중에도,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도 제가 이 사람들 (아산 프론티어 유스 단원, 아산다운커피 직원)과 함께 있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 나는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선발된 이유를 생각해 보았을 때, 아산나눔재단과 아산다운커피는 저에게서 성장의 가능성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치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다 라고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입단식 날 저는 모두들 앞에서 휘슬을 불었습니다. 나의 경기, 우리의 경기는 이제 시작된다고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을 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전/정기 교육과 인턴십으로 보낸 7개월은 치열한 그라운드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료 휘슬을 불기 직전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움직임에 대해 후회하고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야 했는데 하며 자책하고 기 죽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들릴 종료 휘슬은 겨우 전반전 종료 휘슬입니다. 후회하고 자책할 것이 아니라, 잠깐의 휴식 시간 동안 떨어진 체력을 채우고, 후반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전술로 골을 넣어야 할지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그라운드의 느낌도, 관중들의 시선도, 내가 넘어야 할 벽도 모두 느꼈습니다. 이제는 골을 넣을 차례입니다. 제가 그라운드에 설 수 있게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물하기 위해 이제는 후반전을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아프유살림꾼
#영업사원
#촌놈



나의 소중한 부표, 아산 프론티어 유스!

‘건강한 사회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나의 관심들을 비영리 영역 안에서 풀어가면 어떨까’에서 시작된 관심으로 지원하게 된 아산 프론티어 유스. 지원 당시, 진로 선택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옳은 방향인지, 그 판단 기준을 찾기에 급급했고 아산 프론티어 유스 안에서의 깊은 7개월은 고민의 지점을 다른 곳으로 바꾸어 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밖으로 넓은 사람이 되자

항상 깊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아산 프론티어 유스 3기로서 보낸 시간은 넓어지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과 경험을 가진 친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관심 가지지 못했던 주제에 대해 알아가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관점들을 나와의 관계 안에서도 이해해볼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되어야 다른 생각들 안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믿게 되었습니다. 또, 서로 달라서 힘든 것이 아닌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다채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면서 다양성의 가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과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던 밀도 높은 팀 활동의 연속이었음에도 항상 열린 마음, 다양한 흥미와 열의로 감동을 주었던 단원들에게 고맙고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발돋움, 첫 인턴십

인턴 기관이었던 프렌드아시아에서 저의 관심을 살려 일할 수 있었던 것도 특별했습니다. 러시아어에 대한 애정과 연결된 작은 경험들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신기했고, 그만큼 잘해보겠다는 마음과 기대를 안고 시작했던 첫 인턴이었습니다. 국제개발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분야, 첫 인턴, 그리고 모든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버벅대는 것이 당연함에도 스스로의 부족함을 아쉬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주민들, 고려인들의 진실된 이야기들을 마주하면서 일을 수행하기에 급급했던 제 모습을 반성했고, 비로소 일의 진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했던 선생님들을 통해 일에 대한 애정을 배우고,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지난 5개월은 그간의 배움 뿐만 아니라 고민까지도 앞으로의 길에 값진 재료로 남을 것입니다.

#빵공장

#인내심때면 시체

#조용하고 힘있게



의미를 찾을 때까지 여행하라

항상 새로운 선택을 앞두고 고민하는 저의 좌우명입니다. 지금까지 오게 된 여정과 선택에는 항상 우연한 연결고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선택지들 사이에서 고민하고 방황하더라도 또 의미 있는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서 각기 반짝반짝 빛나는 24명의 친구들과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셨던 재단 분들, 윤상식 소장님 그리고 비영리 영역의 활동가들을 만난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었고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지난 7개월간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서의 경험과 성장은 앞으로의 여정에 안전한 항해를 도와주는 부표가 될 것입니다!



AFY의 추억을 기억으로 잇다

3기 수기집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11월, 인턴 근무 퇴근 후 들었던 글쓰기 강의에서 알려준 글쓰기 실력을 올리는 방법의 하나인 마구 쓰기 방법. 그 방법대로 아무 주제로 하루에 하나 이상의 글 작성을 빠짐없이 실천했는데도, 수기집 속 실릴 제 글 하나 적는 건 어려웠습니다. 1기, 2기분들의 수기집을 뒤적이며 완독했음도 워드 화면 속 깜빡이는 커서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저의 수기 글을 생각했습니다. 7개월의 과정 속 느꼈던 수많은 순간적인 감정들과 감사한 인연을 맺게 된 많은 분을 이 글 안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이 표현이 최선이라 적었는데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까 조심스러웠습니다.

몇 날 며칠을 생각해봐도 아산 프론티어 유스란 단어 하나에 참 많은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 분들 성함과 함께 관련된 추억을 넣어보는 수기는 어떨까 하다가도 접었습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 개인 블로그(<http://wngml3974.blog.me>)에 출연작, 주최 주관, 시상식이 각기 다양한데 어쩔 수상 소감은 메뉴얼 보고 읽는 것인 양 하나같이 똑같은 칼럼에 대해 공감하는 소감을 올렸기에. 특정 인물을 언급하기보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 대한 전체적인 회고 방식을 택합니다.



저는 9살 때부터 13살 봄까지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플루트도 바이올린도 잠깐 배워 봤지만 어떠한 악기보다 피아노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과 노는 것보다 곧장 학원 연습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으면 오로지 저와 피아노 뿐인 작은 연습실 공간을 큰 무대인 양 심취해서 건반을 여름철 냇가의 물소리처럼 툭툭 누르곤 했습니다. 1시간의 수업 시간이 그마저도 아쉬워 집에서도 매일 3~4시간 이상 피아노를 연습하던 어린이였습니다. 이러한 피아노에 대한 애정 덕분에 진도 진척에 크게 무리 없이 저는 12살 때 체르니 60을 배웠습니다. 제가 다닌 피아노 학원에선 원생들의 실력을 학부모님들께 선보일 연주회를 꽤 큰 장소를 대관 하여 연말마다 개최했습니다. 피아노 원생들 중 제법 연장자 쪽에 속하였던 저는 12살의 연말 연주회 마지막 연주 순서에 배정되었습니다. 당시 제게 주어진 연주 곡은 와이만의 은파였고, 연주회 개최일 약 1달 전부터 진도를 나가기보다 연주회의 연주 곡만을 연습하고 확인 받는 반복과 반복이었습니다. 사실 그 1달의 연습 기간은 똑같은 곡만을 연습하다 보니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호기심 많은 아이에게 있어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특정 사람들에게 직접 보이는 큰 연주회이기에 평소보다 높은 완벽도가 되어야 했고 많이 혼남에 있어, 그땐 힘겹고 서럽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연주회 당일 멋진 옷을 입고 조명이 비치는 피아노에서 연주를 마치면, 수고와 격려가 담긴 박수갈채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지금껏 연습에 대한 보상을 받은 듯한 기쁨을 느낍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 작은 무대의 기억을 통해 평생의 진로로 피아니스트를 꿈꾸기도 합니다.



#이것저것궁금해

#AFY좋아해요

#나는뭐가될까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제게 있어 그 시절의 추억처럼 특정 용어로 단정 지을 수 없는 - 3기의 참여자로 진행 중일 땐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생각만 해도 좋고, 끝나고 나선 오랫동안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하며 겪은 작고 큰 일화들을 기억할-소중합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 공고를 보고 홀린 듯 설명회에 참여하고 설명회의 생생한 매력에 2번째 설명회에 참여하며 쏟아낸 질문들, 그 질문들을 토대로 지원서와 면접을 준비했던 준비과정, 기관에 보내질 최종 자기소개 영상, 유스 단원들 간의 사전 교육, 5개월의 인턴십 대장정, 인턴십 동안 꾸준히 이어졌던 소셜섹터 맵핑과 사회혁신 프로젝트까지. 수많은 선발 절차와 그 이후의 과정 동안 함께 걸어온 우리 유스3기는 한약 속 한약재들처럼 각자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개인마다 느끼는 시기는 다르겠지만 어느 순간 서로에 대해 당황하는 시점도, 때론 미운 시점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었을 때의 명현 작용처럼 결국엔 우리들은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아산 프론티어 유스 속의 청춘은 무엇을 해도 멋집니다.



끝, 또 다른 시작

제가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 지원한 동기는 2가지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좁았던 시야를 깨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더 넓히고 싶었고, 비영리 중에서도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분야에 확신을 가짐을 통해 진로의 방향을 좁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전교육과 인턴십 후 7개월이 지난 현재 저는 ‘이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았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전교육과 소셜섹터맵핑과 사회혁신 프로젝트로 이루어진 정기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비영리, CSR,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혁신적인 사례를 접하면서 세상을 더 다양하게 바라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해준 소셜섹터맵핑에서의 최고의 팀워크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었던 소셜섹터맵핑이 사실 아주 귀여운 수준^^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준 대망의 사회혁신 프로젝트... 인턴십과 맞물려 약 3개월 동안 진행된 사회혁신 프로젝트의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보통은 한 달에 두 번 금요일에 있는 정기교육이 바쁜 인턴십의 일상에서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었는데, 사회혁신 프로젝트의 압박이 정점에 달했을 때는 정기교육 대신 차라리 출근하고 싶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기존에는 주어진 틀에 내가 그냥 따라가면서 맞추면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회혁신 프로젝트는 그 틀부터 우리가 협의를 통해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너무 당연하게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은 사회혁신 프로젝트 시간 동안 만든 잠시 ‘안녕’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정해주면 간편하고 시간도 절약되는 일을 25명 전원이 동의해야 넘어가는 방식이 너무나 불필요하게 여겨지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이 반복될수록 하나의 안건이라도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과정이 당연해지고, 저의 의견을 적극 피력하는 것에 편해지는 등 사고방식의 변화와 발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혁신 프로젝트는 기존의 교육과정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주체적인 사고 및 결정 방식을 배운 아주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은정한이타주의자

#소소한행복추구

#긍정풍수줄마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또 다른 축인 인턴십은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라는 저의 꿈을 더욱 확신하게 해주었습니다. 2016년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1년간 봉사활동을 한 이후 더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경험을 하고 싶어 국제 보건 NGO인 라파엘 인터내셔널에 지원 했습니다. 라파엘인터내셔널에서의 근무는 아프리카 현장 경험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 등 당장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일에 지치기도 했고, 전문성이 높은 보건 분야에서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벽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운이 좋게도 2번이나 다녀온 미얀마와 네팔 출장은 국제개발협력에서 변함없는 저의 열정을 확인한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맞닥뜨리고 좌절감을 느끼다가도 치열하게 해결책을 고민을 하면서 제 심장이 쿵쿵쿵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턴의 경험과 성장을 위해 적극 응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신 기관 분들의 배려가 있어 5개월동안 정말 라파엘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아산 프론티어 유스3기는 정말 특별한 공동체였습니다. 25명이 가지는 각자의 개성, 다양한 관심 분야, 에너지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21살부터 27살까지 다양한 나이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졌지만 ‘나이’로 구분하는 사회의 기준은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서는 무의미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 3기 동기들은 저마다 가진 별명으로 불리며, 한 명의 인격체로서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동기들로부터 제일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나침반은 원래 흔들리며 방향을 찾아간다

2017년 5월, 막막한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졸업은 가까워져 오는데, 하고 싶은 일이 그려지지 않았거든요. ‘교생을 다녀오면 선생님이로 굳어지겠지?’라는 생각은 4월의 벚꽃과 같이 날아갔고, 취업에 준비가 하나도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 자책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 바닥만 보며 걸어가던 어느 날, 우연히 대학 내일에서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읽었습니다. 비영리 인턴십, 글로벌 스터디, 교육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들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론 피난처를 찾은 느낌이었어요. 프리젠테이션 스터디를 도와주셨던 교수님을 찾아가 자기소개 영상을 감수받고 면접 관련 연습을 했습니다. 전공 수업을 들을 자신도, 하반기 취업을 준비할 마음도 없었기에, 타 지원자들과는 다른 절박함으로 도전했습니다.

기대는 1도 하지 않았다.

선발 결과를 보고, 살았다 싶었습니다. 일단 수명이 6개월 연장된 느낌이랄까.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곳곳에 자랑했어요. 그렇게 교육장에 들어갔습니다. 같이 면접 봤던 재선이, 저, 인희 3명이 모두 붙어서 반가웠고, 각양각색의 25명의 동기가 신기했습니다. 공정무역, 여성운동, 마을공동체 등 각 분야의 활동가부터 성에 대해 감수성이 풍부한 친구들까지. 그동안 바닥만 보던 좁은 생각과 시야에 눈을 띄게 해주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사전교육부터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의미가 변했고 더 값지게 다가왔어요.

사회연대은행에도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생각과 다른 환경에 실망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잘하고 싶었어요. 무슨 일이든 호기롭게 잘할 거라고, 잘하겠다고 포부(돌아켜보면 주먹이 퍼지지 않을 만큼 오글거리지만)를 밝히고 출근했습니다. 아, 땀은 비 오듯 흐르고 목은 타들어 갔어요. 편하게 저를 대해 주셨지만 저는 편할 수 없었습니다. 의자가 없는 줄 모르고 바닥에 파당 주저앉았고, 울리는 전화벨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일하는 분들이 좋아서 금세 적응할 수 있었어요. 전화 상담도 자신감이 붙었고 행정처리도 똑똑똑해냈습니다. 축하~!

이 정도면 ‘참 잘했어요.’ 도장을 여러 개 받을 수 있겠다고 오만하던 10월. 그때부터 새로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사회혁신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사회연대은행에서도 이제는 주도적인 업무를 맡겨 주셨거든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바쁘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 게 프로젝트 때문인지, 기관업무 때문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휘몰아쳤습니다. 가끔은 아프다는 핑계로 도망가기도 하고, 잠수를 타는 저를 보면서 극한으로 몰렸을 때의 안채승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착한 사람, 배려 깊은 사람인 척하는 비겁한 사람, 그러면서 관심과 애정, 이해를 갈구하는 사람. 고개를 저어가며 부인 하고 싶었지만, 이게 나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의 이 경험들이, 오히려 기대하지 않아서 오는 결과? 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기대하는 만큼 사회혁신 프로젝트의 버거움도 기관에서의 일도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준비하지 않았기에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짓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후회도 몰려왔습니다.



결국, 사람, 관계

인턴을 마무리하면서, 기관에 계신 분들과 면대면 식사자리를 가졌습니다(이건 꼭 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어떻게 비영리에 오셨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왜 아직 남아 계신지 등의 공통적인 질문을 드렸지만, 다채롭고 주옥같은 답변들을 주셨어요. 리더의 역할, 인사의 중요성,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등 소중한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미션과 사람을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의 가치와 내 가치관이 같은 방향성에 있는지가 우선 중요하며, 무엇보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 뇌리에 박혔어요.

A : 특히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 미션이 아무리 좋아도 매 순간순간 가슴에 새기며 일하지는 않거든. 하지만 동료는 같은 공간에 함께 생활하잖아? 그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미션도 같이 무너질 수 있어.

채승 : 그렇지만, 모든 동료가 좋은 사람들인 곳에서 일하는 건 너무 이상향 아닌가요?

A : 맞아. 그래서 네가 좋은 사람이 되면 돼. 너를 보고, 너를 닮아가고 싶어지도록. 그러면 그들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 조직이 변해.

A : 나침반 알지? 북쪽을 향하는 방향 잡이. 이상향 이라고 보는 북쪽을 찾아주는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어. 그렇지만 그 흔들림으로 정확도를 높이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거야. 우리의 조직도 흔들릴 수 있고, 너의 인생도 흔들릴 수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마. 다 우리가 쫓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야. 흔들려야 사는 거고, 그게 또 맞이지. 좋은 사람이 되렴.

덕분에 7개월 전과 지금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이 여전히 막막함에도 괜찮아졌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지 불확실성 속에 있지만, 흔들려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지 고민할 뿐.

#징징이

#해봐야안다!

#I will be the better!!



나를 유스로 채운 시간

면접을 보기 위해 안국역에서 종로 02를 기다리던 때가 엇그제같이 생생한데, 저는 어느새 수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이어리를 뒤적이다 면접 때 붙였던 이름표를 발견했습니다. 이름표 옆에 적어놓은 ‘붙었으면 좋겠다!’를 보니 그동안의 과정이 스쳐 지나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영리로 채우기

저는 막연히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비영리 분야가 궁금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 지원했고 감사하게도 단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전교육에서 많은 비영리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셜섹터맵핑으로 각 분야의 기관을 깊게 탐구하면서, 계단을 올라가듯이 비영리에 대해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짧은 교육 기간이었지만 생소했던 소셜섹터 개념들을 익히고 사회문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앞으로의 과정을 위한 기초를 다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사전교육이 끝나고, 저는 한국헬프에이지 해외사업팀에서 5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에 아무런 경험이 없어 해외사업팀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저의 부족함에 많이 좌절하고 힘들었지만, 저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의 격려 덕분에 끝까지 힘내서 인턴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면접, 사업 수행, 예산집행 검토 및 등록, 중간/종료 보고서 번역 등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해외사업이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이해하게 되었고 막연하게 느껴졌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흐름과 담당자들의 역할이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업무에 배울 점이 있었고, 감사한 채움의 기회였습니다.

함께 채우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과정 동안 24명의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유스 단원들을 통해 우물 안 개구리였던 제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빛나는 친구들과 사이에서 지내면서 저도 그 빛을 조금이라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힘들다’는 말이 숨 쉬듯 나왔던 사회혁신 프로젝트도 빛나는 친구들과 함께하기에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 제 의견을 말하는 것, 논의에 대해 회고해 보는 것 모두 다 익숙하지 않았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멋진 친구들이 있었기에 배우면서 헤쳐나갔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혀럼 막연하지는 않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통해 쌓은 경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고 언제나 용기 있게 한 발 내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씩 해보면서

#잔잔히

#흘러가는중

고민의 불꽃이 커지기까지

Burn

다양한 활동을 하고, 경험을 쌓으면 진로가 정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서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꺼내지 않았던 휴학 카드를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 참여하기 위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복수 전공하면서 했던 실습과 봉사 활동을 통해 비영리 분야는 비교적 많이 접해왔지만,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저의 성장을 위해 같이 힘써준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방면의 시야를 넓힐 수 있을 뿐 아니라, 제 자신의 역량을 기를 기회이기에 7개월을 불태워도(Burn)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Burning

진로를 고민하는 마지막 시간으로 의료복지 분야를 경험하고자, 한강성심병원 내 사회사업팀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한림화상(Burn)재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화상 환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동반하기에 더욱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턴 초반에 화상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화상 경험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조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외상으로 인한 트라우마, 차별의 경험으로 인해 제가 밝은 말이 혹시나 그들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우려가 되었습니다. 이런 조심스러움이 상대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연습을 하게 해주었고, 진심과 열심은 역시 전달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인턴십 동안 화상 경험자들의 아픔을 듣고 함께 울어줄 수밖에 없던 것이 아쉬웠고, 화상 경험자에게 더 많은 긍정적 영향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졌던 ‘화상 경험자 긍정적 인식강화 프로그램’, ‘화상병원학교’ 외에 기금 마련 사업인 ‘몸짱 소방관 달력’과 다양한 외부 교육 참가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단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임하게 되었습니다.



Burn up

뚜렷한 신념과 다양각색의 경험을 가진 유스 단원들로부터 저는 많은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다양한 것을 경험하길 좋아하는 제게 시너지 효과를 내주었습니다. 덕분에 함께 강연을 들으러 가기도 하고, 소모임 활동으로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하늘을 날아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추천을 받아 포토/플로리스트 클래스를 듣는 등 값진 경험들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는 퇴근 후 시간의 대부분을 유스 단원들과 채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영리에 관한 관심을 가진 유스 단원들과 사회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면서, 다방면으로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인턴이라는 또 다른 공통사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아 고민을 해소하고 나 홀로 인턴의 외로움을 덜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노력이 저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을 때마다 심리적으로 Burn out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열심히 하는 단원들과 인턴십 기관의 따뜻한 선생님들로부터 자극과 지원을 받으며 의미를 찾아갑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분명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었지만 마침내 인턴십에서는 주체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거나 진행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고,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한 모습을 보며 7개월이 후회되지 않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정많은 수도꼭지

#부지런떨기

#Who am I





삶의 의미

오래 전부터 광활한 우주에 대한 두려움과 사후 세계가 있는지, 죽음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고민을 해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 중 하나인 행성, 지구... 다른 행성들에 비해 한없이 작은 지구... 그런 지구에 존재하는 더 작은 인간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궁금했으며,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이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 속에서 비영리 분야를 알게 되었습니다. 등 떠밀리듯이 경영학과에 진학하고 배움이 계속되면서 성과 위주의 평가와 물질적 풍요에 대한 찬양은 저에게 영리에 대한 반항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비영리는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왔고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도 성과를 주요 평가 지표로 삼는 것이 영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영리는 어쩌면 또 하나의 산업군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방향이 시작되었지만 아산 프론티어 유스 덕분에 유연한 사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비영리와 영리 모두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리를 미워하지 않고 비영리를 밀어내지 않고 둘 사이에서 타협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타의로 인한 전공선택과 그곳에서 상처로 인해 닫힌 마음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 분야에 제한되지 않고 의미를 찾기 위해 계속 도전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 선택이 아닌 것 같으면 다른 선택을 통해 계속 도전해야 합니다. 신념을 지니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믿고 싶은 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믿고 싶어서 믿는 것입니다. 종교도 그렇고 사랑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신이 존재한다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존재한다고 믿으면 살아가는 데 큰 의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영원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원할 거라 믿고 살아가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지충

#견자

#비주류



신이 존재하든 아니든, 사랑이 영원하든 아니든, 사실이라 믿고 그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의미가 있다고 믿는 일에 도전하는 것, 사람이 태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멈춰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게 인생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인생이 짧고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끝이 있기 때문에 의미를 찾고 도전하는 과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삶이 짧은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있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삶이 짧은 걸 알면서 나태한 게 나쁜 것이고 죽음이 있는 것을 알면서 더 도전하지 않는 게 나쁜 것입니다. 힘들면 잠시 쉬어 가도 괜찮습니다. 다만,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쉬지 않아야 합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 이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저만의 의미를 찾기 위해 계속 도전하겠습니다.



희동의 이야기

함께하기 위해(아산 프론티어 유스 참여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제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비영리 분야에 관해 공부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더욱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유스의 일원이 되기 위해 서류와 면접 그리고 자기소개 영상을 준비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나 자기소개 영상입니다. 영상을 통해 저는 ‘더불어 사는 가치’를 중시하는 이미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서울숲을 배경으로 하여 공존하는 모습을 담았고, 아산 프론티어 유스 3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영리한 친구들과 비영리에 대해 배우다 (소셜섹터맵핑)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소셜섹터맵핑은 혼란의 연속이었지만 그만큼 비영리 활동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했던 팀플과는 다르게 조원들과의 긴장을 느끼고 생산적으로 일을 진행했다고 나름 생각 됩니다. 총 발표가 두 번 있었고 여러 번의 제출과제가 있었지만 큰 마찰 없이 웃으며 끝낼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나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24시간이 모자라’ 조의 박아빈, 안재승, 김하은 그리고 원영덕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잔치중
#아무말대잔치
#나를철학있음



망원동 잊지 못할 그 곳 (인턴십 국민통일방송)

재미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재미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인턴 생활 동안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부터 라디오 대본을 쓰고 녹음을 하는 업무까지 다양한 일을 배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짜증 나거나 지루하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었습니다. 시작은 “내가 언제 이런 일을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열심히 했지만, 돌아켜보면 한 언론의 인턴기자라는 직함에 조금 거만해졌던 적도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겁이 많은 성격 때문에 매일매일 대북 관계를 살피고 한반도의 긴장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벅차 위축되었던 것입니다. 큰 비행기 소리에도 전쟁의 공포를 느끼는 저이기에 종종 식은땀을 흘리며 북한과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의 긴장감을 전달했습니다.

사회문제 그리고 나를 알게 되다 (사회혁신 프로젝트)

사회혁신 프로젝트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장기 팀 프로젝트입니다. 약 7개월간 이어지는 프로젝트에서 보자기 팀은 매주 한 번씩 만나 회의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힘들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제가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팀의 주제 ‘성교육 문제를 바로 잡자’가 제가 관심 있는 사회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보자기 팀은 팀원들끼리 서로 장난치며 늘 활기찬 모습으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팀원들 역시 장기간 프로젝트로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와 같을 것입니다. 이 점은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느낀 점은 스스로 계속해서 힘을 내고 일을 하려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몸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혁신 프로젝트는 협업과 경험의 가치,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제 자신을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행자의 마음가짐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저는 하나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느낌이 듭니다. 처음 합격 통보 전화를 받았을 때는 비행기 표를 끊은 듯이 설렘 가득했고, 유스 동기들을 만났을 때는 타지에서 우연히 한국인을 마주친 듯 반가웠습니다. 난생 처음 인턴을 시작했을 때는 모든 일이 새롭고 신기했지만, 여행을 떠나기 전에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진실을 맛보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았다면 결코 몰랐을 진실이었기에 이 여행이 더 마음에 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의 결심

‘나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국제구호를 보편화시킬 것이다.’ 저의 아산 프론티어 유스 지원서는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전공 수업에서 시리아 난민에 대한 발표 준비를 하던 중, 흥미로운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시리아 난민들이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유럽으로 떠나다는데 여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의외로 스마트폰이었다는 것입니다. 난민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항해 경로, 날씨, 식품 및 의료지원 센터, 난민 신청 절차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통역기능 덕분에 어려움 없이 현지 활동가와 소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제가 대학교에 와서 배운 수많은 이론, 특히 외교 정책들이 무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기술이야말로 사람들의 필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차별 없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최선책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아카이브 또는 분쟁지도 제작을 구상했던 아디에 매력을 느끼고 지원했습니다.



여행의 현실

하지만 제가 고작 5개월 인턴이라는 점, 소셜섹터 맵핑과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코딩 실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인턴십 기간 중, 로HING야 사태는 역대 가장 많은 사상자와 피난민을 기록하며 국제사회에 그 심각성이 대두되었고 사무실도 더없이 바빠졌습니다. 게다가 아디는 신생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신들의 사업을 알리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실 활동가분들을 지원하거나 홍보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7월에 기대했던 인턴 생활은 아니었지만, 이 또한 충분히 즐거웠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세상을 마주했습니다.



새로운 세상

증거의 불충분을 핑계로 로HING야 학살을 모른 척하고 있는 미얀마 정부 그리고 이를 곧이곧대로 수용하는 버마인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IT 기기 또는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1) 로HING야분들이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까? 2) 버마인들이 미얀마 언론의 편향된 정보 제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찾아보니 경찰의 검열을 피해 현장 사진/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어플, 재판에 쓰일 피해자의 진료 기록을 수집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어플 등 벌써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얀마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스마트폰 보급률은 굉장히 높은 반면 페이스북 이외의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교육만 잘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로HING야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진실들을 마주했고 분쟁 지역 내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던 제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지원했던 이유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마무리

글로벌 스터디와 파일럿 프로젝트가 남은 지금, 또 새로운 진실을 마주할 것 같아 ‘마무리’라는 단어를 쓰기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경험들을 통해 나 자신 그리고 사회에 대해 더 많이, 더 깊이 공부했고, 여행의 즐거움을 깨달아 도전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차코 지코 하나만

#SIP 혼자신남

#울보



모든 순간, 배우고 사랑하겠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제가 대학 생활에서 마침표를 찍기 직전에 도전한 프로그램입니다. 졸업 이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던 제게, 비영리 섹터를 이해하고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말고사 시험과 보고서로 허덕이면 서도, 시간을 쪼개가며 지원서와 자기소개 영상 그리고 면접을 준비했었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3기 단원 친구들과 만나 친해지는 과정부터 시작해, 소셜섹터맵핑, 사회혁신프로젝트, 인턴십 등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모든 과정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매 순간 깨닫고 배우고, 또 성장하는 기회였습니다.

3기 단원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서, 저는 ‘나’로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말하고 표현할 때, 경청해주고 깊이 공감해주는 단원 친구들 덕분에 이전보다 자신 있게 나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가지고 있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드러낼 때, 이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채워주는 친구들을 통해서 한 뼘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소셜섹터맵핑과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혁신
프로젝트는 ‘내가 해결해보고 싶은 사회문제는
무엇인지, 그게 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그 문제를
일으킨 원인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정말 치열하게 고민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강점들을 새롭게 찾아
내고, 제가 가진 약점에 대하여 끝없이 회고하면서,
제가 가진 리더십을 강화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5개월 동안 진행된 월드비전 서울동부지역본부
에서의 인턴십 또한 배우고, 돌이켜보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꿈꾸는아이들사업’ 등
여러 사업을 보조하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한 조직의 구성원이 되어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나날 이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았던 저였기에
월드비전 서울동부지역본부에서 일을 할 수 있었
음에 감사했고, 그냥 인턴이 아니라 아산 프론티어
유스 인턴이어서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돌이켜보니 아름다워 보이나,
사실 아쉽고 후회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순간
순간 넘어지고 비틀거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군
가는 “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삶은 순간의 희극과
순간의 비극들로 촘촘하게 메워져 있는지도 모른
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저는 모든 순간을 단지 배움의 시간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모든 순간에 만족할
수 없어도, 비록 후회하더라도, 순간의 비극들은
언제나 나를 강하게 만드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의 희극들은 나를
지탱하는 원동력입니다. 결국, 저는 ‘나의 모든
순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왠지 수기를 쓰는 내내 떠올랐던) 입단식 때
밝혔던 저의 포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또다시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순간들을 사랑하며 살아
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앞으로 제가 할 모든 말과 행동을
후회하지 않겠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저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과정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
니다. 감사합니다.”

#입고쓰는 인혜

#정리하는 월E

#아프유 걸크러쉬



이 모든건 우연이 아니니까

아산 프론티어 유스 프로그램도 어느새 막바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 온전히 마무리 지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를 천천히 돌아 보면,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전체적으로 저에게 ‘우연’ 보다는 ‘운명’에 가까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SNS에서 아산 프론티어 유스 모집 글을 보았습니다. ‘지원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러 고민으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가까운 친구가 같은 글을 보고, 제 생각이 났다며 지원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스스로 반려한 기회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게 되었고, 한여름의 진땀 나는 면접을 거쳐 슈퍼유스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인턴십은 함께일하는재단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갔던 날, 기존에 예정되었던 팀이 아닌 국제협력팀에서 일하게 될 거라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제 자기소개서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변경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상 밖의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지만, 싫지 않은 기분이었 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결국, 평소 관심이 많았던 국제협력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인턴십이 끝난 지금 정말로 존경하게 된 멋진 분들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소셜섹터매퍼,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인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비영리에 대한 새롭고, 다양하고, 보다 생생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산 프론티어 유스 3기 슈퍼유스라는 이름 아래 24명의 인연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3기 단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웃기도 울기도 하고, 공부하고, 놀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기도, 같이 풀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가치를 믿고, 다양한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했습니다.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서 만난 인연들은 많은 시간을 함께한 만큼 더욱 소중한 인연입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결국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하고 과한,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 아직도 수수께끼인 저 자신을 발견하게 해 준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모른 채 살아갈 수 없는 어느 정도의 비영리DNA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속도와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아산 프론티어 유스처럼 우연인 듯 운명적인 순간들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지나온 저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 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비영리DNA

#우연이야니까

#함께니까



아산 프론티어 유스 3기

기록팀

수기집 작업은 그 어느때보다 치열했을 3기 단원들의 이야기를 기록팀의 손으로 하나하나 모으고 엮어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어요! 각자 팀 프로젝트에 글로벌 스터디까지 정신없는 와중에도 틈틈히 준비한 우리 기록팀 고생했구 항상 멋졌습니다! 일사천리 속전속결 회의 잊지 못할거예요~ 이제 꼭 쉬자!!!

김민석

아산 프론티어 유스 3기 7개월의 모든 순간을 담은 수기집을 보니 설레기도 하고 벅차기도 합니다. 모두의 추억을 담기 위해 기록팀 모두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매 교육마다 기록하느라 고생하신 기록팀 짱짱입니다!!

고성준

수기집 제작에 참여하여 지난 7개월 간의 여정을 되돌아보니 숨 가쁘게 달려오느라 보지 못했던 많은 추억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추억들을 하나하나 담아 우리만의 기록으로 묶어낼 수 있어 아프유를 좀 더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남은채

빠르게 달려왔던 지난 시간들을 하나씩 들추어보며
즐거웠던 기억, 의미 있었던 배움, 찰나의 감정들까지
모두 안고가고 싶었습니다. 결국, 서로를 보면서 배웠고
함께여서 좋았던 시간을 선물해준 아프유 모두에게
고맙습니다!

박아빈

우리의 7개월을 하나하나 들춰보면서 잊고 있었던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기집 기록을
통해 기억하고, 아프유의 기억이 모두에게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스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을
추억하며 하하호호 웃을 수 있기를! 그리고 기록팀
the love♡

양인희

아프유 활동을 돌이켜보고 정리하는 기록팀으로서,
수기집 제작에 참여하게 되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7개월 동안 함께 하였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록을 넘어서 기억하겠습니다:)

차인혜

The Asan Nanum Foundation

아산나눔재단은 2011년 10월
고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의 서거 10주년을
기념하여 출범한 공익재단입니다.

아산의 도전, 창조 정신을 계승한 ‘앙트러프러너십’
확산을 위해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가정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터 성인을 아우르는 기업가정신 교육 사업을
시작으로 사회혁신가를 육성하는 아카데미 사업,
비영리기관을 지원하는 파트너십 사업, 예비 창업가를
발굴하여 창업 인프라를 제공하는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배움과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꿈을 현실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사람의 손을
끌어주고, 잘하고 있는 사람은 더 잘하게 만들어 미래를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역량 있는 전문가를 키우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아산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이를 수 있다” 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이끄는

사람과 기관을 양성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들은 다음세대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보듬어 줄 것입니다.

비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를 수 있는 세상

미션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업가와 사회혁신가가

도전하고 성장하고 나누는 기반을 만듭니다

핵심 가치

도 전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이끄는 힘

성 장 배움과 실천을 통한 잠재력의 발휘

나눔 더불어 사는 책임주체로서의 성숙한 자의식

사업 선택 원칙

역량 일회성, 시혜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개발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사회적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파급효과를

파급효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자생력 개인과 가족 및 지역사회의

복원 자생력을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

사업 진행 방식

책임성 새로운 시도에 과감하지만 책임 있는 투자

질적 성과 양적 사업성과를 넘어 질적 사업성과를 추구

투명성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사업진행

66

가장 참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가장 큰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인재가 된다.

그 참된 식견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도

직접 겪어보고 가장 힘든 일도 직접 해보고,

가장 고생스러운 현장에도 나가서 경험해보고 해야만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한자리에 편안히 오래 앉아 있으려고 하지 말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열심히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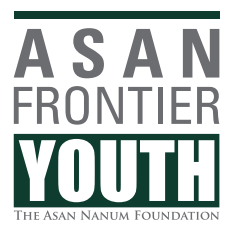
더 많은 지식을 터득해서 폭 넓은 식견을 구비해야 한다.

스스로 원해서 어려운 일을 맡고, 시련을 이겨내는 경험을 젊을 때 미리미리 쌓아야 한다.

그것이 미래를 사는 젊은이들의 바람직한 자세다.

99

아산(峨山) 정주영



발행일 2018년 2월
발행처 아산나눔재단
진행 아산나눔재단 글로벌리더팀
아산 프론티어 유스 3기 기록팀

주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 208
전화 02 - 741 - 8220
홈페이지 www.asan-nanum.org
E-mail youth@asan-nanum.org

#오이	#토니
#보노	#빈박
#마이콜	#태두
#돌리	#나무
#사과	#또탑
#소소	#이니
#스텔라	#푸린
#형씨	#로빈
#또치	#희동
#파랑	#차코
#호두	#월E
#은차이	#지금
#몽기	